



전국 육계인 토론회 성료

- 육계인 및 관련인 150여명 참석 -

본 회(회장 이준동)는 지난 6일 대전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13년 전국 육계인 토론회'를 개최했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설명(김정주 사무관), 육계산업발전방안(이흥재 부회장)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. 본지는 이날 있었던 강연 내용을 요약·정리하였다.



▲ 본회 이준동 회장





무허가축사 개선대책

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44.8%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되었습니다. 환경부에서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에 있습니다.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.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. 단계별로 올해 상반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·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올해 안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'15년까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·허가를 통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계획입니다. 또한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.



김 정 주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
사무관

육계산업 발전방안

국내 육계 농가는 과거 2,000호에서 현재 1,60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호당 사육수수는 22,000수에서 46,000수로 점점 전업농 사육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가슴살 등 다이어트 식품, 백색육에 대해 각광으로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간 국민 1인당 약 11.5kg을 소비하고 있습니다. 국내 육계산업은 백색육으로의 소비패턴 변화, 높은 환금성,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, 절대위의 사료효율성, 환경친화적 사육 용이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. 사육단계문제점, 농가와 계열화업체간 상생 협력체계 미흡, 유통 및 소비 단계 문제점 등이 그러합니다. 생산자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 육계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.



이 홍 재
본회 부회장

(정리 | 최인환 기자, enani85@naver.com)